



안득수 <전북의대 교수>

간경변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오랫동안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동안 간세포가 파괴되고 재건되는 가운데 간이 섬유성 반흔과 간세포의 재생성결절로 대체되어 간이 울퉁불퉁해지고 단단해지며 간의 정상적인 소엽구조가 상실되기 때문에 혈관을 눌러 문맥고혈압과 간세포 자체의 기능장애로 인한 간부전증세를 일으키는 종합적인 마지막 결과이다.

간경변의 원인

간경변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간염과 알콜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몇가지 주요한 원인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알콜

알콜의 과잉섭취와 간경화의 관계는 잘 알려져 왔는데 이는 동양보다는 서구 사회에 많은 원인으로,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다. 술의 소비량과 알콜성 간경화의 유병율은 비례한다. 술의 종류나 술의 습관보다는 일일소비량이 중요한 연관성이 있고 40-82g의 알콜을 매일 소비했을 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간경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자에서는 남자보다 소량으로 간경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알콜 자체가 간세포를 직접 상해할 가능성이 간장에서의 효소연구와 전자현미경에 의하여 명백해졌다. 그러나 알콜 단독으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원인들과 작용했으리라 보고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알콜 중독자들이 비타민이나 단백질이 적은 식사를 하며 영양부족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볼때 알 수 있다. 또 이런 간경변증 환자는 단백질 많은 식사를 하게되면 병세가 호전되므로 영양실조와 알콜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간경변증에 작용했다고 사료된다.

(2) 만성 활동성 간염

어떤 원인이든 만성 활동성 간염을 일으키는 질환은 간경변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연관이 많다. 간경변인 환자의 혈액이나 간조직속에서 B형 간염과 직접 관련된 항원이 높은 빈도로 증명되고 간염이 점차로 진행되어 간경변으로 이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모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높은 비율로 B형 간염 항원 보유자가 되고, 일부는 조기에 간

원인인 및 증상

경변으로 이행하므로 주목받고 있다. 또 약이나 독성물질, 화학물질등도 발병 원인으로 의심을 받지만 실제로 증독성에 의한 발병을 그 수가 매우 적은것으로 나타나있다.

(3) 담즙의 울체

담즙성 간경변은 원인불명의 원발성 담즙의 울체와 담관의 폐쇄로 오는 속발성 담즙성 간경변이 있다. 원발성인 경우 원인불명으로 세담관에 염증이 있거나 파괴되어 담즙이 울체되어 일어나며 이는 40대 이상의 여성에서 많다. 이처럼 중년기의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호르몬 계통의 이상 혹은 항원항체의 면역 복합체와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속발성 담즙성 간경변은 수술후의 담도협착이나 담석,체장이나 담관 또는 담낭에 생긴 암에 의해서 담관이 장기간 폐쇄되어 담즙이 울체되어 황달을 수반한 간경변을 일으킨다. 이 병형도 동양 사람에게 많고 젊거나 중년의 여성에게 많은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이 밖에 발생빈도가 매우 낮지만 철분이 과잉 흡수되는 질환인 헤모크로마토시스, 오랫동안 심한 심부전을 앓았을 때 생기는 심장성 간경변, 윌슨씨병등이 있다.

간경변의 일반 증상

간경변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세를 나타내지 않거나 일부 약한 간세포만이 기능부전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간장이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예비력도 왕성하여 일부가 장애를 받아도 나

특 집 간경변증

머지 정상적인 간세포에 의하여 큰 문제가 없이 대상된다. 이 시기에는 식욕감퇴, 전신 권태감, 피로감, 구역과 구토 및 수상복부동통 등 비특이적인 증세를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기를 지나 간경화가 진행되면 비대상기의 말기적인 증세가 나타났는데, 크게 문맥압 항진증에 의한 합병증과 간세포 기능 부전에 의한 합병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문맥압 항진

문정맥, 혈관은 장관과 비장등에서 오는 상,하 장간막 혈관 및 비장정맥이 모여 간을 통과하여 간정맥으로 나가는 혈관계로 정상 간에서의 문정맥압은 대정맥압보다 5mmHg이상 높지 않지만 간경변에서는 증식된 섬유성 반흔과 재생성 결절에 의해 정상구조가 파괴되면서 혈관이 압박을 받아 문정맥압이 현저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에 문정맥과 전신 혈관계에 부혈로가 발달되어 식도 및 위정맥류, 매두사의 머리등이 유발되며 비장비대 및 복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2) 소화관 출혈

문맥압 항진으로 인해 식도, 위에 부혈로가 형성되어 소화관 출혈의 원인이 된다. 토혈과 혈변이 주증상이며 저절로 멎는 수도 있으나 대량 출혈로 간경변에 의한 주

요한 사망 원인이 된다. 또한 간성 혼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3) 복수

간경변이 진행되면 문맥압 항진, 혈청알부민 감소 및 염분 저류 등으로 복수가 고이게 된다. 초기에는 무증상의 시기가 오래 가면서 자각적으로 증세가 오는데 점차로 배가 나오고 복부 팽만감과 소화관 증세와 누막액 저류 및 복막염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비특발성 복막염의 경우 복수가 있는 환자가 복통과 압박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간성혼수로 이행되기도 하고 사망원인이 되기도 한다.

(4) 간성혼수

간성혼수란 말기 간질환 환자에서 오는 여러가지 정신신경학적 증세를 말하며 간기능의 저하 및 안정제 복용, 이노제의 남용, 위장관 출혈, 단백질의 증가, 감염 등의 촉발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나타난다. 의식과 인격장애를 단계적으로 나타내는데 초기에는 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잠이 많이 오고 말수가 적어지며 자신이 있는 현재의 장소나 병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든지 허리띠를 매지 않은 채 걸어

다니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불안초초해 하며 흥분하기 쉬워지고 큰 소리를 내거나 정신착란 상태가 되면서 깊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오한이나 고열은 없으나 미열은 흔히 있다. 술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마시게 되면 급성간장해를 일으켜서 구역, 구토와 함께 황달과 복수가 생기며 혼수에 빠지는데 이는 위험한 상태로서 혼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할 수도 있다. 간경변증이 지속되면 복수가 심해지고 정맥류,간성혼수등 말기적 증상을 일으킨다.

알콜성 간경변증과 같이 증상이 거의 없으며 젊은 사람에서도 생길 수 있다. 초기에는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황달이 오래 갈 수 있다. 그 밖의 증상은 알콜성 간경변증과 비슷하다.

담즙성 간경변증 초기 증상은 가려움증이며 황달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담즙장애작용이 주증상이다. 병세가 진행되면서 기타 간장병의 비대상기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예후는 불량하다.

헤모크로마토시스에서는 초기에는 당뇨병 증상과 겸은 피부색소 침착을 보이며 복통,호흡곤란,부종,복수,말초신경염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전신적인 질환으로 간은 대부분 커져있다. 심장성 간경변증에서는 심부전이 오래된 환자에서 단단하고 커진 간이 촉진된다.

바이러스 肝炎과 알콜이 주원인 전신권태 · 체중감소 · 복부불쾌감등 보여

요한 사망 원인이 된다. 또한 간성 혼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간경변증의 여러가지 원인

